

한화석유화학, PVC 중국수출 타격

LG화학 6%에 한화 12% 부과 ... 중국의 마진산정 방식 갈수록 철저

중국이 한국산 PVC(Poly Vinyl Chloride)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.

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, 중국 상무부는 9월29일 한국을 비롯한 일본, 미국, 러시아, 타이완 등 5국산 PVC(H.S.390410)에 대해 최대 84%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기로 결정했다.

한국은 LG화학 6%, 한화석유화학 12%, 기타 76% 등으로 조사대상국 중 타이완과 함께 낮은 관세를 부과 받아 PVC 중국 수출에서 큰 차질을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한화석유화학은 중국수출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
중국의 PVC 반덤핑 판정결과

회사명	예비판정	최종판정	회사명	예비판정	최종판정
LG화학	10%	6%	Kaneka	62%	30%
한화석유화학	13%	12%	기타 일본기업	115%	84%
기타 한국기업	76%	76%	J/S Kaustik	34%	34%
Shitech	83%	83%	Sayanskchimplastl	67%	가격인상약속
Formosa USA	25%	11%	기타 러시아기업	82%	47%
기타 미국기업	83%	83%	華 夏	15%	12%
信越화학	54%	17%	塑 咬	10%	10%
V-tech	50%	21%	大洋塑料	23%	22%
Taiyo Vinyl	32%	7%	기타 타이완기업	27%	25%
Shin Daiichi vinyl	70%	34%			

중국 정부는 중국 석유화학기업의 반덤핑 제소에 따라 2002년 3월 말부터 한국을 포함한 5국산 PVC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, 2003년 5월 예비판정에서 LG화학과 한화석유화학에 각각 10%와 13%의 마진율을 판정했다. LG화학의 PVC 생산능력은 한해 75만톤, 한화석유화학은 50만톤을 보유하고 있다.

중국은 한국의 PVC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중국수출이 2000년 1억7000만달러에서 2001년 1억4000만달러, 2002년 9600만달러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2003년 들어 증가세로 반전돼 1-8월 중국수출만 8060만달러로 전체 PVC 수출의 54.6%에 달했다.

한국산 PVC의 중국시장 점유율도 일본, 타이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.

중국은 PVC 자급율이 2002년 기준으로 60%에 머물러 한국의 PVC 중국수출에는 당분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.

그러나 중국의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는 당초 중국 제소기업들이 신청한 덤핑마진율보다 높아진 것으로 중국 측 조사당국의 엄격해진 덤핑마진 산정방식이 앞으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기업들은 중국수출 가격산정 및 물량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0/01>